

# RPC 실태와 개선방향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대가로 수입쌀을 시장에 시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쌀 시장개방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국내 쌀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체제 구축이다. 허나 쌀 생산과 유통체제를 책임지고 있는 RPC의 문제가 많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번호에서는 RPC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편집자 주>』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농해수위 국정감사 홍윤표 의원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현황

건조, 저장, 도정, 포장 등 자동화시설을 통한 벼의 일괄처리로 미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고품질 쌀 선호 추세에 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개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 현대화시설이 바로 미곡종합처리장이다.

그런데 쌀 시장 개방 확대를 앞두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들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정부는 각종 정책지원 등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특히 생산 현장에서 쌀 개방에 적극 대비해야 할 농협마저 구체적 복안 없이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50여개의 농협RPC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한 읍·면에 5~6개 정도 있는 곳도 있다.

특히 이들 농협RPC들은 전문 마케팅 결여로 동일 품종의 소구

모 생산량을 갖고 유통업체 납품을 위한 제살 깎기식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 농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구조와 시설이 열악한 농협RPC들이 대형 유통·식품업체들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소규모 농협RPC를 통합, 연합사업 시스템을 구축한 후 대형 식품·유통업체들과 공조체제를 통한 상품개발(기술)과 유통·판매 마케팅 능력을 공유해 공격적인 시장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농협RPC는 대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상품 기술개발 노하우와 습득 유통·판매 마케팅을 토대로 독자적인 쌀 판매 가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대형업체들이 현재는 국내 쌀을 공급받아 판매(유통)하거나 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쌀 가격과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등에 현지 생산라인을 건립,

기능성 쌀과 가공품을 생산해 직접 들여오겠다는 움직임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으며, 쌀 수입개방이 기정사실화 된 이상 업체들이 값싼 수입쌀을 구매, 유통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농협RPC들은 쌀 개방에 대한 인식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 2004년농해수위 국정감사 훈문표 의원 발표자료 中

- 누적 적자 총 8백 14억원

91년부터 추진, 3백 82개소('03년기준) : 농협2백개소, 민간 1백 28개소)

● RPC지원내역

구분	기간	개소	금액(억원)
RPC 신규시설 지원	91년-01년	328	5,216
건조·저장 시설 지원	95년-03년	568	2,885
운영자금	95년-03년		30,302
특별자금	01년-03년		13,280
계			51,683

- ※ 91년부터 03년까지 13년간 총 5조1천6백83억원
- ※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누적 적자 총 8백14억원 (94년~03년까지, 개소당 평균 4억 7백만원)
- ※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2백개 중 1백 40개 적자 (03년 기준, 자금지원 제외한 영업이익 기준)

● 벼의 가공능력과 가공실적 ('03 기준, 단위: 톤)

구분	가공능력	가공실적	최대가공실적	가공율(%)
03년도	3,310,470	1,226,818	1,242,122	37.52

● 생산량/시설·저장·가공 능력 ('03 기준, 단위: 천톤)

03년 생산량	건조능력(비율)	저장능력(비율)	가공능력(비율)
6,182	2,505(40.5%)	1,287(20.8%)	3,450(56%)

수확기 저장능력이 생산량의 21% 수준 - 야적불가피

# 개선사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 고품질 쌀 생산

순수 고품질 종자 개발 시급  
토양개량제 공급 3년1주기로

▲정부대책=시중 유통중인 국산 쌀은 품질이 싸라기, 분상질립 함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 RPC, 농업기술원, 지역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개발한다. 또한 정부 보급종도 고급품종 공급을 확대해 2007년까지 50%수준으로 늘리고 2년1기 갱신체제를 갖춘다. 이를 위해 2006년 이후 보급종 전량을 고품질로 대체하고 고품질 품종은 시험장으로부터 원종 종자를 최대한 확보해 조기 공급한다. 논의 지력증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유효 규산 함량이 부족한 논에는 4년1주기 기준으로 규산질 비료를 연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문제점과 개선방향=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품종, 기상, 토양, 재배기술, 수확시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중 벼 품종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순수 고품질 종자는 18개(예비품종 포함 42개)에 그쳐 농가 품종 선택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작년부터 지역별로 3개 고품질 품종을 선정, 이를 우선 수매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농업인들은 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았다. 특히 해당 품종 외 타 품종은 지역 RPC에서 수매하지 않아 시장 출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품질 품종 공급이 농가소득을 보장해주는 수매시스템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 브랜드 쌀 현황과 개선

시·군단위 공동브랜드 개발  
생산자 조직 '규모화'가 우선

▲정부대책=정부가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실시하는 '시중 유통중인 브랜드 쌀 평가'는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재작년 각 시·도에서 추천한 51개 농협 브랜드 쌀을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했다.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종혼합 여부와 외관상 쌀의 품위 및 식미평가 등을 종합해 우수브랜드 12개를 선정했다. 작년에는 61개 브랜드 쌀이 대상이었다.

▲문제점과 개선방향=브랜드 난립이 우선 문제다. 현재 유통되는 브랜드 쌀은 1200여 개에 달한다. 대부분 개별 브랜드로 소비자 인지도제고에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원료곡의 지역간 이동과 산지 속이기 등 부정유통에다 타 지역 공매곡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은 원산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부 유명 브랜드 쌀의 경우 공급물량 제한으로 타 지역 쌀을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저하와 유통질서 문란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시군 단위 공동브랜드 개발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다. 현행 브랜드 쌀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해 통합하는 것이다. 공동브랜드는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와 연계된 사항. 단위 농협이나 영농법인 수준의 영세규모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 미곡종합처리장(RPC) 육성

적자 RPC 통폐합 '1군1개' 로  
건조·저장시설 증설 등 지원

▲정부대책=미곡종합처리장(RPC) 대책의 핵심은 쌀 유통기능 강화와 경영 규모화다. 2010년까지 RPC가 수확기 출하량의 70%를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처리능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1300여개의 건조·저장시설(DSC) 증설 및 신규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경영규모화를 위해 적자 RPC를 통폐합한다. 여기에다 RPC의 경영안정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탁판매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지역별 수매 품종을 3개 내외로 통일하고 계약재배 확대, 품종별 보관·유통 등이 추진된다.

▲문제점과 개선방향=경영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교섭력을 위해 평균 1군1개 RPC가 운영되도록 통폐합해야 한다. 또한 경영규모화를 위한 시설확충도 경영이 건실한 RPC를 중심으로 DSC를 증설해야 한다. 계약재배는 품종 통일과 함께 고품질 쌀 재배 기술 및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쌀이 저급 쌀과 혼합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차별관리가 요구된다.RPC 이외의

쌀 가공·유통 사업자도 고려대상으로 꼽힌다. RPC를 보유하지 않고 벼를 수매하는 농협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민간 사업자들의 쌀 유통비중이 20%에 달한다.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 사업자들도 육성해야 한다.

### [ 예 ] 진주시 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진주시 사봉면의 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RPC)은 벼 2만8421톤 중 약 1만톤(35%)을 11개 농협이 매입·가공해 3개의 브랜드로 판매, 연간 13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그러나 브랜드별 상표 이름과 포장재만 다를 뿐 내용물은 전혀 차별되지 않고 있다. 주요 판매처인 대형 할인점들이 소비자 가격차를 이유로 각기 다른 브랜드를 요구하는 것이다. 품질차별화를 하려 해도 RPC 시설이 따라주지 않고, 품질차별화를 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 요구사항

이렇게 해야 합니다

- 농림부와 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곡관리가 있어야 함
- 지역 내 농협 RPC간 사업연합 적극 추진(읍면소재지 내 건조·저장시설 확충, 시군 당 1~2개의 공동 RPC 운영을 유도하여 과당 경쟁과 중복·과잉투자 방지)
- RPC의 첨단시설과 조제가공기술, 완전미 생산과 중저온 저장고 등 첨단시설 도입
- RPC기능 강화를 위한 연속적인 장기지원 확대

<지난호(12월) 퍼즐게임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